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 관장 한국미술의 역사를 기록하는 수집가

40여 년간 모은 미술 자료로 포털사이트, 박물관까지 만든 이가 있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은 흠어져 있는 미술 자료를 한데 모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고 연표를 만들며 한국 미술사를 기록하고 있다.

1911년 간행된 미술 교과서 <정정 보통학교학도용 도화임본>, 1962년에 김환기가 쓴 친필 엽서... 국내 최초 미술 자료 박물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단행본 및 화집 8000여 권, 팸플릿 1만4000여 점, 미술 교과서 260여 권 등으로 가득하다. 40여 년간 미술 자료를 수집한 김달진 관장의 컬렉션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담뱃갑, 우표, 껌종이 등을 모으는 데 흥미가 있었던 그는 잡지에 컬러 프린트된 '모나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 미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다. "자료를 구하러 매일 청계천에 갔어요. 어른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신문 쪼가리 오려서 어떻게 밥 먹고 살겠냐'며 걱정했지요 (웃음)." 미술 자료 수집에 몰입한 김 관장은 평생 이 일만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다. "신문, 잡지를 매일같이 보다 보니 미술계에서 누가 유명한지 절로 알게 됐어요. 그분들에게 함께 일해보고 싶다는 편지를 썼는데 대부분 거절하거나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당시 홍익대학교 박물관 이경성 관장님이 한번 오라고 해 그동안 스크랩해 만든 '서양미술전집' 10권을 보자기에 써서 가져갔지요. '잘하고 있다.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일을 계기로 그는 이 관장이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 부임한 후 자료실에서 일하게 된다. 큐레이터는 커녕 자료실도 없던 시절, 일당을 받는 '일용 잡급' 신분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15년 동안 근무한 후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을 거쳐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해 2001년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연다. 이듬해에는 전시 소식을 비롯한 최신 미술계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술 종합 포털 '달진닷컴(daljin.com)', 월간 <서울아트가이드>까지 선보인다. 2008년에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개관했다.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존할 뿐 아니라 소장한 자료를 공개하는 전시도 직접 기획한다. 11월 11일까지 열리는 <20세기 '한국화'의 역사>전은 한국화의 100년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 한국화와 관련된 팸플릿, 도록 등 300여 점의 아카이브를 공개한다. 전시를 준비하며 이숙자, 심경자 등 생존 작가 10인에게 '본인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라', '자신의 대표작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라', '한국화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요즘, 한국화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주제를 던져주고 친필로 답변을 받았다. 필적까지 수집하기 위해서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설명하는 자료는 연구의 밑거름이 됩니다. 많은 이가 작품을 수집하는 데만 매달리는데 화구, 편지, 일기장 역시 작가를 깊이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예요. 작가가 유명해지고 나면 그제야 이런 자료들을 찾지만 세월이 지나면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육성, 친필 등 살아 있는 작가들의 흔적을 잘 남겨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김달진 관장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과제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 공간이 협소해 상대적으로 많이 찾지 않은 자료를 수장고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재원 확보가 어려워 고민이 크다. "이 자료들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이지요. 어떻게 정리, 기록, 보존해서 후세에 잘 남겨줄 건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

글 김희성기자 | 사진 이명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디자인의 힘, 우리 모두는 타고난 디자이너다!

독특한 취향을 반영한 특별한 제품을 만드는 일,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발굴해내는 일,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일. 네이버 디자인은 내일을 위한 가치 있는 디자인, 일상에서 발견하는 디자인의 가치를 소개합니다. 네이버 모바일 앱에서 '네이버 디자인'을 검색하세요! <럭셔리>에 소개되는 다양한 디자인 관련 기사는 <럭셔리> 포스트(post.naver.com/luxuryeditors)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